

## 하나님의 거처의 입구에 기둥들이 됨

3주 - 1일

출 26:31-32, 36-37 너는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끈 실로 짠 세마포로 휘장을 만들되, 그 휘장은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 휘장을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개의 기둥에 걸되, 기둥마다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네개의 은받침 위에 세워라...너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 실과 끈 실로 짠 세마포로 막을 만들되, 수놓아 짜는 기술자의 수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막을 걸 다섯개의 기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라. 그 기둥들에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고, 그 기둥들을 세울 받침 다섯개는 놋을 부어 만들어라.

장막 안에 휘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히 10:20) 이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고 증거궤를 가리고 있었다. (민 4:5) 이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창 6:3), (창 3:21~24 각주 참조) 이 장막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찢어졌는데 이것은 죄의 욕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고 죄인들이 지성소의 화해 덩개인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마 27:51 각주 1; 히 10:19-20; 롬 3:25; cf. 출 25:22). (회복역 성경 출. 26:31, 각주 1)

휘장의 연결된 기둥들은 금으로 입혀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으며 은받침 위에 서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둥은 그리스도의 성욕심과 죽음의 간증을 짊어지는 강한 믿는이들을 의미한다. 이 장막이 기둥에 연결된 것은 기둥인 믿는이들이 장막인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동일시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거처의 기둥들은 더 이상 육체를 살지 않고 육체가 찢어진 장막의 간증을 지녀야 하는데 이는 그들 자신이 모두 끝나고 그들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음을 나타낸다. 기둥들에 걸려있는 찢어진 장막은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들이 된다. (회복역 성경 출 26:32, 각주 2)

장막의 입구에 있는 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과 장막의 첫째 덩개인 재료와 동일하다. 이 막은 하나님의 거처로부터 소극적인 사람들과 사물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의미하며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처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막 안에 있는 막과 휘장은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두 방면을 예표한다. 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나타낸다.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육체와 타락한 본성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하나님을 극도로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회복역 성경 출 26:36, 각주 1)

이 두 종류의 기둥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하며 또한 그 곳에서 자신들이 끝나고 하나님 자신을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막을 지지하는 다섯개의 기둥 사이에는 성막의 들어갈 수 있는 네개의 입구가 있었고 휘장을 지지하는 네개의 기둥 사이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세개의 입구가 있었다. 네개의 입구가 있는 막은 하나님의 거처가 온 땅에 있는 네 방면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휘장의 세 입구는 삼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 단지 거처 뿐만이 아닌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 21:12-13 각주 13<sup>1</sup>). (회복역 성경 출 26:37, 각주 1)

행 1:8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2: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41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날에 약 삼천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

우리는 거듭 거듭 이 두 회장 즉 회장과 막이 기둥에 걸려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것은 오늘 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입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에서 입구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구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간증을 짊어지는 기둥을 필요로 한다. 이 기둥들이 없다면 입구이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입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방법이 없다. 이것은 그분 자신을 다른 이에게 보여줄 어떠한 방법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입구가 되셨다. 오순절날 이 그리스도의 간증은 예루살렘에서 백이십 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만약 오순절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간증을 짊어진 믿는 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계시될 수 있었겠는가? 그분이 산 위에서 또는 하늘의 보좌에서 나타나셨겠는가? 만약 그분을 짊어질 기둥들이 없었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결코 나타내실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오순절날 그리스도는 백이십 명에게 걸려계셨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간증을 위한 기둥들이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죄인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순절날 주님께 더해진 삼천 명은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만족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 뿐 아니라 이 120 명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졌다. 이 백이십 명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과 그리스도는 하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오순절날 구원받은 삼천 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백이십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소의 체험을 하며 또한 지성소의 체험을 하게 된다. 2장과 4장에서 기록된 단체생활은 성소 안에 생활이었다. 사도행전의 많은 장들이 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대한 누림을 묘사한다. 우리는 사실 아직 몇 믿는 이들은 그들의 육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음을 알고있다. 예를 들어 행 6:1 절은 “그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하였다.” 당시 믿는 이들이 모든것을 공유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투덜거렸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사도행전 6 장 이후에는 공유하는 생활의 관한 언급이 없다. 우리의 육체 때문에, 공유하는 생활은 지속되지 않았다. 나아가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성소에 머무는 생활을 하지 않았고, 바깥마당으로 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몇 믿는 이들이 교회생활의 입구를 위한 기둥이 될 뿐 아니라 더 깊은 지성소를 위한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기둥들을 통하여 성소 안에 사는 성도들은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갖게 된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102 장, pp. 1190-1192)

갈 2:9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통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계 3:12a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는 성막에 아홉 개의 기둥이 있음을 보았다 (출. 36:36, 38). 장막 입구에 다섯 개의 기둥이 막을 지지했으며 성소 입구에는 네 개의 기둥이 휘장을 지지했다. 교회 안에는 기둥들이 되는 이들이 있다. 갈라디아서 2 장 9 절은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성숙하고 강한 사람들로서 단순히 널빤지가 아니라 교회의 기둥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 장 12 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기둥들은 성막의 널빤지들과는 다르다.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빤지는 보호와 분별에는 유익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다. 반면 기둥들은 입구일 뿐만 아니라 보호와 분별에도 유익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둥이 되기 위해 우리는 널빤지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널빤지는 보호, 성화, 거룩함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별에는 유용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서기 위해 강하다. 우리에게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배척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주님을 찬양한다. 그들이 없이는 벽이 없고 교회가 부정적인 것들에 너무 개방되고 노출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처에 보호가 없고 세워짐도 없을 것이다. 건축을 위해 우리는 분별되는 많은 널빤지들인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 분별하는 널빤지들은 새 예루살렘성의 성벽과 같이 생명에 의해 분별하고 보호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전부 널빤지들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올 입구가 없게 된다. 교회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 될 것이다. 입구의 기능을 위해 우리 중 일부는 다름을 받아야 하며 널빤지를 잘라내고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 기둥은 널빤지보다 더 정교하고 강하다. 널빤지들은 잘려야 하고 기둥이 되기 위해 맞춰져야 된다. 한편으로 잘리고 맞춰지는 것은 감소하는 것이고 다른 면으로는 더 강해지는 것이다. 다름을 받은 이들은 매우 유연해 질 것이다. 그들은 보호와 지지대가 될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된다.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 교회 안에 인수를 증가시켜 주실 것을 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믿는 이들 중 얼마는 기둥들이 될 필요가 있다. 널빤지의 수는 마흔 여덟 개지만 기둥들의 수는 단지 아홉 개이다. 대다수는 널빤지들이고 소수의 기둥들이 있다.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구속 받는 사람들을 위한 문을 제공하는 기둥들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0 장 9 절에 주님은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양들은 그분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 그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로써의 주님을 통해 자유함을 갖는다. 교회와 더불어 분별하는 벽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입구는 책임을 나타내는 다섯 개의 기둥이었다. 두 번째 입구는 사람,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개의 기둥이었다. 전체적으로 아홉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는 삼 곱하기 삼이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 안에서 삼중을 의미한다. 기둥들은 구속된 피조물들인 사람들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만드는 책임을 갖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이다.

(CWWL, 1963, vol. 1, “Spiritual Applications of the Tabernacle,” pp. 121-123)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회장과 장 모두가 기둥들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 부착은 동일시를 가리킨다. 회장은 기둥들과 동일하며, 기둥들은 회장과 동일하다. 우리는 회장이 그리스도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회장을 받치는 기둥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복수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단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장과 그것을 받치는 다섯 기둥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섯 개의 기둥들과 네 개의 기둥들은 모두 믿는이들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부착되고 그분과 동일시될 때, 우리는 기둥들이 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 가운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부착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선포한 후, 우리는 일상 생활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미친다. 밤낮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갈망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다른이들에게 말하기를 갈망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너무나 열심이어서 미쳐 보이기까지하는 사람들은 장에 부착된 기둥들이다. 무디(D. L. Moody)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구원받은 후 이런 기둥이 되었다. 그는 복음에 미쳤었다. 무디는 참으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부착된 한 기둥이었다. 장에 부착된 기둥들은 복음 전파자들, 즉 교회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전파자들이다. 다른 기둥들은 교회 안쪽, 즉 안쪽의 방 안에 서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 특별히 장로들이다. 그들은 날마다 찢어지고 부서진 회장, 즉 육신 안에서 끝난 그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부착시킨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이렇게 끝난 그리스도에게 부착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끝났고 그들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다는 간증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앞에 있는 기둥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기둥들이 된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서 두 종류의 기둥들이 모두 필요하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열심이어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교회 생활의 앞에 서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서 또 안쪽의 기둥들도 필요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간증과 그들의 육신이 찢어졌고 쪼개졌다는 간증을 지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증가를 얻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담대한 복음 전파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면 많은 죄인들이 구원 받고 교회 안으로 인도될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 전파자들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앞쪽의 기둥들을 갖지 못한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부족하다면, 교회 안의 기둥들을 갖지 못한 것이다. 우리에게서 심판 받으셨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들이 필요하며 끝나셨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에게 앞 쪽의 기둥들과 안쪽 방의 기둥들이 모두 있다면, 하나님의 거처에 입구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길 것이다.

당신은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는지 아는가? 그것은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동일하게 된 기둥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 못 박히시고 끝나신 그리스도에 부착되어 동일하게 된 기둥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간증을 지닌 기둥들이 필요하며,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간증을 지닌 기둥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두 종류의 기둥들을 모두 가질 때, 죄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들이 생길 것이며, 그런 다음 그들이 끝나서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구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성막인 교회 생활을 갖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8:5-6, 8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니, 무리가 듣고 또 그가 행한 표적들도 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빌립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고전 9:16: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다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외적인 활동으로서만 움직인다면, 이러한 복음은 강력할 수 없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영을 가져야 한다. 이것만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올 것 이다. 대략 삼년 전에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상하이 대학에서 말한 적이 있다. 만약 젊은 사람이 그의 영을 주님께 열어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하여 말하였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죄인들의 혼들을 사랑해야 한다. 특별히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참된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에서 부담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급우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볼때,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쁘지 않을 것 이다. 개인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복음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만약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영으로 채워진다면, 죄인들을 지속적으로 구원 받을 것 이다.

D. L. 무디는 그의 전 생애동안 대서양을 막론하고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다. 그는 신발 장인이었지만, 그는 죄인들의 혼들을 위한 사람 이었기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원할 많은 부담이 있었다. 한번은 한 어린 소녀를 주일성경학교에 초대하였다. 그녀는 오기로 약속하였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며칠 후에 무디는 그 소녀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 소녀는 그를 피해 호텔로 도망가, 어느 방 침대 밑에 숨었다. 하지만 무디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찾아 호텔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은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그 소녀는 결국 그와 함께 집회에 가게 되었다. 무디가 죽은 후에, 그의 동역자 R. A. 토리가 기차에 있었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질문하였다.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에 데려가기위해 침대 밑에 숨어있다가 결국 찾아진 그 작은 소녀의 딸 입니다.”

또 한번은, 무디는 덮개가 없이 창살만 있는 우산을 들고서 비내리는 거리에 서 있었다. 이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무리가 그를 둘러싸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비를 막을 수 없는 이 우산처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길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복음전파에 열심인 사람들을 보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고 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신들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면 자신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영에 의해 부담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뭔가 불편하고 심지어 아프기 까지 한다. 내가 구원 받았을 때도, 내가 다른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안에서 평안이 없었다. 결국 나는 연휴기간 종일 복음전단지들을 작성하였고,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을들을 방문하였다. 다른 때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하였다. (CWWN, vol. 62, ch. 37, pp. 403-404)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한 일은 특정한 사람을 요구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도바울이 구원을 받은 즉시, 그는 예수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행 9:20-22). 이것이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이었다. 베드로와 요한같은 신약의 사도들과 무디와 스페전을 포함한 교회의 역사의 모든 섬기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의 봉사를 시작하였다. 구원받은 모든이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영이 있고, 복음을 전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그들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CWWL, 1985, vol. 2, “The Vision, Living, and Work of the Lord’s Serving Ones,” ch. 2, pp. 227-228)

사도행전 4:29,31 주님, 이제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살피시고, 주님의 노예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시며...그들이 간구하기를 마치자, 모여 있던 곳이 진동하였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일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구원받은 직후에, 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 당시에 나를 목양해주는 이가 없었다. 더욱이 치푸에서 다른 종파의 일원들은 복음전파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나 혼자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나는 매 주일마다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 버스가 없어서 나는 걸었다. 나는 매일 20 마일 정도를 걸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매우 지쳐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 복음 교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복음 책자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복음 책자를 쓰기 시작했다. 이 복음의 영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우리들 중 몇몇은 이를 기르는 대신 막고 있다. 복음의 영은 꺼질수 있거나 불탈수 있는 불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영을 길러야 하며, 불태우기 위해 부채질을 해야한다. 불이 크면 클 수록 더 좋다.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영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의 일은 헛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허나, 우리는 특정 인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복음의 영을 강화시켜서 복음의 불이 우리안에 탈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가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매일 괴로워하는 수천명의 사람들을 위한 긴급함을 알고, 특별히 죄인들을 위한 관심과 그들을 접촉할 수 있는 열망을 가질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기도는 불타는 복음의 영에 바람을 불어 넣어준다. 우리가 더 기도할 수록, 우리안의 복음의 영이 더 불타게 된다. 결국 우리가 죄인을 볼때 슬픔에 잠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젊은 성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주는 복음 책자는 차가울 것이다. 허나, 복음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 뜻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눠 주는 모든 책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복음의 불이 우리 안에 불붙으면, 우리는 복음에 미치게 되고 모든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것이다. 젊은 성도들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 전파에 미쳐야 한다.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은 볼 때 활기가 넘쳐야 하고, 복음에만 관심해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책자와 소책자를 매일 같이 배포해야 한다. 내가 젊었을 때 내 주머니에는 복음 소책자가 항상 있었다. 출퇴근 길에 나는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책자를 나눠주었다. 우리가 상점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때, 우리는 복음 소책자를 나눠줘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모든곳에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복음의 효과를 볼 것이다. 경륜의 영, 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할 것이며, 복음 안에서 힘이 충만할 것이다.

내가 교통한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최소 2-3 년은 복음이 불타고 복음에 미쳐야 한다. 복음에 미치는 모든 자들은 얼굴이 두꺼워질 것이고, 담대해질 것이고, 수줍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 일해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젊은 풀타임 봉사자들은 복음에 미쳐야 한다.

(CWWL, 1985, vol. 2, "The Vision, Living, and Work of the Lord's Serving Ones," ch. 2, pp. 228-229)